



고흥군, 동네방네 행복충전

건강교실 연중운영 ‘호응 커’

운동과 건강교육 병행...11월까지 10주간 진행



고흥군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을회관·경로당 등 직접 찾아가는 ‘동네방네 행복충전 건강교실’ 운영한다.

지난 5일 풍양면 매곡마을을 시

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읍면 보건진소와 진료소를 통해서 신청한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각각 10주간 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건강교실에서는 건강생활실천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목표로 운동과 통합건강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운동교육에는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요가, 생활체조, 음악치료, 노래교실 등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 전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와 건강행태검사를 진행해 개인별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프로그램 참여 후의 신체활동 변화정도를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건강 증진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들의 민족도와 호응이 높다”며 “건강교실 운영 전후에 실시하는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와 민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유지와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함평군, 다문화가족 모국탐방(친정나들이) 신청 접수

함평군과 함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모국탐방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센터는 입국 3년 이상 된 가정과 3년 이상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족 중 기족생활과 사

희생활에 모범적인 가정을 선정하여, 가족구성원 전체 항공료의 70%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면 2009년 이래로 1회 이상 함평군과 외부기관의 수혜를 받은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한편 함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는 지난 2008년 개소하여 함평군과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8개 가정이상 전체 79가정(함평군 54, 외부지원 25)에 항공료를 지원했으며, 함평군 다문화가족의 약 80%가 혜택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함평=김광준 기자

보성군, ‘친환경 골드키워 종합유통시설’ 준공

25억 원 투입,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농산물 생산·유통



보성군은 22일 ‘친환경 골드키워 종합유통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현호 군수 권현대행을 비롯한 김정육 농립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국장, 임명규 도의회 의장,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시설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해금골드키워 영농조합법인(대표 양태민)이 선정되어 지난해

부터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건

축연면적 2,479㎡ 규모로 조성면 조

성리에 확대하고 있다.

선별, 저장, 유통이 가능한 2조라인 시설, 자동제작기, 저온저장고 등 최신설비를 완비해 관내 골드키워 380여 생산농가에 대한 계약재배와 관리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 농산물을 생산·유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해금골드키워 영농조합법인은 전남권역에서 연간 1,000톤 이상의 친환경 골드키워를 매입하여 돌코리아,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출하하는 등 유통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친환경농업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친환경 골드키워 인증면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준공식에 참석한 유현호 군수 권현대행은 “친환경 골드키워 종합유통시설은 생산농가의 소득인정과 친환경 과수산업 확산을 위한 기틀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7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무상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건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취업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약사항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청탁 청탁 및 법률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지원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민사권리방안 안내

리 도서로 구성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읍면별로 매립장과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등 인력, 조직, 시설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시설로 선정되어 폐기물처리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도면 관계자는 “신안군 공무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붕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익취와 침출수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최신식 소각로’를 기동하여 대기오염과 다이옥신을 저감하는 등 능동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안군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제주시 우도면 주민 등 신안군 폐기물처리시설 방문

도서지역 쓰레기문제 해결 위해 지도읍 소각시설 벤치마킹

지난 22일 제주시 우도면 주민 및 공무원 등 22명이 신안군 지도읍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도면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내 우수 환경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도읍 폐기물처리시설은 전국 최초로 침출수, 익취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예산절감을 위해 지붕에는 쓰레기매립장 1,400㎡와 시간당 300kg의 쓰레기장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기동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신안군은 장래 폐기물 정책의 근간이 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암태·지도·중도·장산 등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지속 확충 부서별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쓰레기처리 실무회의 개최, 처리요원 직무교육 실시, 님비현상 해소를 위한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폐기물 종합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7년 11월 환경부주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에서 1개소의 폐기물처리시설만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와는 달

구례군, 체납차량 집중 단속 홍보

내달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구례군은 오는 3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구례군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군에서는 그동안 독촉장 발부, 문자 발송, 전화 독려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독려하였으나,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1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일제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관의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달리는 마을 늘어난다

오지마을 기준 낮춰 8개 마을 추가 혜택



장성군 오지마을 주민들의 발이 되어 온 ‘100원 행복택시’가 확대 운영된다.

장성군은 올해부터 오지마을에서 각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으로 이용하는 ‘100원 행복택시’의 수혜 기준을 대폭 낮춰 기존 20개 마을에서 28개 마을로 수혜 범위를 넓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성군은 20개 마을 주민 550여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해 왔다. 이는 마을회관~버스정류장 거리 1km 이상인 마을을 오지마을 규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규칙 개정을 통해 거리 기준을 0.8km로 낮췄다.

기준 완화에 따라 추가된 지역은 진원면 능산마을·청룡마을·고내

마을, 동화면기정마을, 황룡면 증산마을, 북일면 용암·용연마을, 북하면 월진마을 등 총 8개 마을로, 약 310여명의 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매달 400씩 100원 택시 이용권을 지원받고, 이용권과 함께 100원을 내면 소재지까지 택시로 이동할 수 있다.

장성군은 2016년부터 20개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원 행복택시’ 사업을 벌여왔다. 특히 지역 택시업계와 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택시에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민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면서 “이번 오지마을 기준 완화 조치로 원거리 이동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